

“우리도 선거 뚝다”...野 4당 통합시장 후보 등판

진보 단일후보에 이종욱 정의 강은미 출마 공식화 국힘 이정현 조만간 선언 조국혁신, 출마자 물색 중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본권이 한창인 가운데 야권 후보들의 변면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진보당은 이

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통합시장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진보당은 지난 10일 논의를 거쳐 기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인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과 김선동 전 의원을 이종욱 후보로 단일화했다. 이 후보는 용인 삼성반도체산단 호남 이전 등 광주·전남 공동번영을 위한 통합공약 제시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대표주자로 나선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초·광역 의원을 거쳐 국회에 진출한 뒤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



이종욱

강은미

이정현

농성을 벌이는 등 노동·안전 이슈에 앞장 섰다.

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시민이 특별하게,

삶이 빛나는 노동특별시를 만들어 수도권 일극 체제와 민주당 독점체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사퇴한 이 전 위원장은 조만간 광주를 찾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수 불모지’로 지망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를 사실상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이 필요로 하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역할을 다할 준비를 하겠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장동영 대표는 “전남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거 출마리는 헌신적인 결단에 대

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며 “전남광주는 물론 호남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 시너지 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도 조만간 출마 후보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지난 26일 나주 영산포 풍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특별시장 후보를 접촉 중이며, 포기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민주·국힘·정의·진보·기본소득당 등 5개 당, 전남지사엔 민주·국힘·진보 등 3개당이 본선에 출전한 바 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특별시장 지방의회 선거제 서양진 “개선 간담회 재개할”

조국혁신당 서양진 원내대표(비례)는 31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간담회가 무산된 데 대해 “정개혁위를 깨울 돌파구로서 간담회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5대 개혁조치를 우선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집권당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성지가 특정 정당의 ‘영지’로 전락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은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무투표 당선율이 약 55%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 것은, ‘선거는 있었지만 선택은 없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간담회를 계획대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원칙 말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 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공천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첫 중앙선대위 광주서 개최 용혜인 대표, 호남 진출 의지 다져

기본소득당이 올해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광주에서 갖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기본소득당은 31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용혜인 선대위원장, 선대위원들과 함께 문지영·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김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후보 등이 참석했다.

전국 단위 중앙선대위 회의를 광주 현

장에서 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기본소득당의 호남 진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용혜인 대표는 “전국에 인터넷망을 구축했던 혁신이 김대중처럼 혁신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때”라며 호남을 국내 인공지능 첨단산업의 선두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장 통합 지원금 20조원이 주민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 투자금이 되도록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자들도 각오를 다졌다.

박은영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광주의 제1야당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고, 문지영 후보는 “생신 혁신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기본소득이라는 분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대위는 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와 지방선거 기금 집행방침을 심의·의결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득권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후보를 직접 발굴하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후보라면 초당적으로 연대하겠다”며 “전국기 기본소득 공약으로 들쭉이는 지방선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동부권 교육 대전환 5대 비전 선포

이정선, 동부권 부교육감 신설 등 ‘교육 자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정선 예비후보(현 광주시교육감·사진)가 전남 동부권 교육 혁신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전 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권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순천 출신인 그는 “고향의 미래를 교육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며 “전남 동부를 대도시 수준 이상의 교육 환경을 갖춘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전은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동부권 스마트교육청 설립과 부교육감 직제 신설 △‘내 집 앞 명문고 10개’ 조성 △신산업 인재 삼각벨트 구축 △‘우리 아이 1000 드림 펀드’ 조성 △교육 자산의 지역 환원 등이다.

이 후보는 특히 동부권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교육청과의 부교육감 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천·여수·광양 지역 교육장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해 자치성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교육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내 집 앞 명문고’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아



이정선

울러 순천 시내·선월 자구의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 순천교육지원청의 성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도 포함됐다. 순천(디지털 콘텐츠), 여수(반도체), 광양(이차전지)을 연결하는 산업 기반 교육벨트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 아이 1000 드림 펀드’를 통해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적립, 총 1000만 원 규모의 성장 자산을 마련하는 교육 투자 모델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폐교나 유휴 교육시설을 문화·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 자산 지역 환원’ 정책을 추진해, 교육을 지역 교육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남에서 성장하고 광주에서 검증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통합 시대를 이끌겠다”며 “실력회합! 이정선이 교육으로 전남 동부의 내일을 바꾸고, 시·도민과 함께 더 나은 교육에서 찾아오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수 기자 joinsu@

6·3 지방선거 브리핑

황경아, 남구 발전 공동정책 발표

단일화 후보 주요 공약 등 녹여내

더불어민주당 황경아 남구정당 예비후보(사진)가 단일화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공약을 자신의 공약에 녹여낸 ‘황경아 남구 발전 공동정책’을 내놨다.

황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온 김용집·성현출·하상용 후보의 소중한 정책적 자산을 반영한 ‘남구발전 공동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정책에는 김용집 후보의 ‘남구 르네상스’ 계승, 성현출 후보의 ‘문화·교육 현장 행정 강화’, 하상용 후보의 ‘미래 산업 허브’ 조성 등 그동안 세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조했던 프로젝트가 담겼다.

황 예비후보는 남구 르네상스 계승을 통해 원도심 재생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문화·교육 현장 행정 강화 정책을 통해 ‘문화 교육 특구’로서의 내실을 다져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미래 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서도 백은·진월 디지털 상권 대전환 및 청년·벤처 허브를 만들어 나갈다.

황경아 예비후보는 “김용집 후보의 계승, 성현출 후보의 문화적 안목, 하상용 후보의 도전적인 미래 비전은 우리 남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실현해 나갈 방향”이라며 “훌륭한 정책에는 경계가 없으며,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원팀의 동력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중단 없는 남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황경아

정다은, ‘복구제일주의’ 선언

기업 유치·주거 지원 대폭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복구정당 예비후보가 31일 “복구에서 기업하면 상상 이상의 혜택이 제공되는 복구제일주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복구형 기업 유치 및 투자 지원 조례(가안)를 제정해 복구 소재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해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거주인구를 둘 다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의 매입대주택 사업과 같은 유관기관의 사업 등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 LH는 민간사업자가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하고 완공 후 매입하는 ‘민간신축 매입약정사업’과 사용승인 10년 이내 주택 및 15년 이내 아파트를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사업’,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 예비후보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복구 소재 기업들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할 뿐만 아니라 과감한 인센티브로 기업이 찾아오는 복구를 만들어 나간다.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뿐만 아니라 제반시설, 공공요금 등 다양한 세제 지원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다은

정인화-이충재 예비후보 단일화

민주 광양시장 경선 ‘3파전’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본권을 앞두고 정인화(사진)·이충재 예비후보가 31일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경선 구도가 3파전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장 경선은 김태대·박성현·정인화 예비후보 간 경쟁으로 압축되며 판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충재 예비후보는 이날 광양시장 열린총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화 예비후보 지지와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 후보는 “광양의 미래를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정인화 후보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시장 자질과 지역발전에 대한 자세, 정열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일화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선거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단일화 당사자인 제가 채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예비후보는 “광양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큰 책임으로 시민 앞에 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단일화로 경선은 3명으로 좁혀졌다. 단일화 효과가 실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지, 다른 후보들의 대응 전략과 맞물려 경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정인화

“65세 이상 버스 무상 이용”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 공약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사진)는 오는 민선 9기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발표했다.

윤병태 예비후보는 31일 “2026년 1월 기준 우리 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다”며 “일상에서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를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해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교통 복지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나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3만286명으로 집계돼 3만 명을 넘어섰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이용 공약은 민선 9기 출범 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이어 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당 바깥에서도 문화, 건강,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빛가람동에 ‘어르신 쉼터 놀이터’를 조성해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4억3천만 원을 투입, 스마트TV와 무선인터넷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연결하는 스마트 경로당을 본격 운영 중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도 추가 선정돼 7억44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경로당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나주=조현찬 기자 pose007@gwangnam.co.kr



윤병태